

불교와 현대미술 만남...새 문화공간 탄생

전등사, 11월 5일 무설전 서운갤러리 개관

천년 고찰 강화도 전등사내에 현대 미술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들어서 눈길을 끈다.

전등사는 11월 5일 조계종 중앙총회의 장 향적 스님, 前 호계원장 범등 스님, 전등사 회주 장운 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설전 및 서운갤러리'의 개관식을 했다.

이번에 개원한 무설전과 서운 갤러리는 불교신행과 현대미술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이다. 불상과 불화는 물론 공간 구성이며 법당 활용까지 기존 사찰과는 완전히 다르다. 현대 미술 작가 중심의 창작단을 꾸려 법당 무설전을 현대적 공간으로 세웠으며, 이 무설전 내에 99㎡ 규모의 '서운갤러리'를 운영한다.

서운갤러리는 강화지역 포교에 큰 족적을 남긴 서운(1903~1995) 스님의 법호를 딴 것. 지난달 말 먼저 신축한 495㎡(150평) 규모의 법당 무설전(無說殿) 입구에 들어서자 가운데 불상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다.

이 불상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제작한 김영원 홍익대 명예교수가 현대인의 인체 비례를 반영해 조성했다.

주불인 석가모니불을 비롯해 지장·보현·문수·관음보살 등 4대 협시보살, 원불에 모두 개금(금칠)이 아닌 백색도료를 입힌 게 특징이다. 70여평의 법당 공간 위에는 설치미술작품인 999개의 연등을 달았다.

오원배 동국대교수가 그린 후불 벽화도 유럽 전통방식의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했다. 벽화는 명화에서 흔히 보는 문수, 보현보살 대신 석가모니의 제자 가섭, 아난을



왼쪽부터 이정교, 김영원, 오원배, 범우 스님, 윤범모 교수

불상... 금색 대신 백색도료 입어
불화... 서구식 프레스코기법 활용
김영원·윤범모 교수 등 거장 참여

중심인물로 삼았다는 점도 새롭다. 공간 디자인은 이정교 홍익대 교수가 담당했다. 한국 현대불교미술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욕적인 작업의 의의와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출판물로 정리하는 작업은 윤범모 가천대 교수가 맡았다.

불상을 만든 김영원(65) 홍익대 명예교수는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의 제작자로 유명하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금과옥조였던 금빛 대신 청동 불상에 흰색의 무광 폴리우레탄 재료를 칠했다.

조각 작품을 담은 주불 등 5개의 불상에서는 위압적인 권위를 느낄 수 없다. 석가모니불 양 옆의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보살은 각각 아이들 남녀 가수, 친근한 아줌마 아저씨의 얼굴을 형상화했다. 두상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었던 기존의 불상과 달리 인체 비례도 균형을 잡았다.



백색도료를 사용한 석가모니불좌상 뒤로 프레스코화 기법을 활용한 불화가 보인다.

주불인 석가모니불 좌상 뒤의 불화는 서양화가인 오원배(59) 동국대 교수가 맡아 서구식 프레스코 기법을 활용해 그렸다. 프레스코 기법이란 회반죽으로 지은 벽이 마르기 전 아직 축축할 때 물에 녹인 안료로 벽화를 그리는 것을 뜻한다.

오 교수는 "프랑스 유학 시절 유럽 정통의 프레스코 기법을 배웠다"며 "국내 불교 회화에서 프레스코 기법을 응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술평론가인 윤범모(61) 가천대 교수는 "무설전과 서운갤러리는 불교와 미술의 만남, 종교와 예술의 공존을 상징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미술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면모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등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 무료로 갤러리를 운영한다. 또 개관 기념으로 이만희·오경환·민정기·임옥상 화백 등 전등사가 소장중인 국내 중진화가 작품을 연말까지 벽에 건다.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불교와 예술성을 합쳐 스님과 신도, 일반인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강좌와 음악회, 결혼식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강화 전등사=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초의 수묵담채 '다산초당' 눈길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전

다산 정약용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학자 중 한 명이다. 그의 사상과 인품과 삶은 시대를 초월해 큰 감명을 주고 있다.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그의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테마전 '다산 정약용·하늘을 받들어 백성을 보듬다'를 12월 16일까지 박물관 중·근세관 테마전시실에서 개최한다.

후 재평가 등으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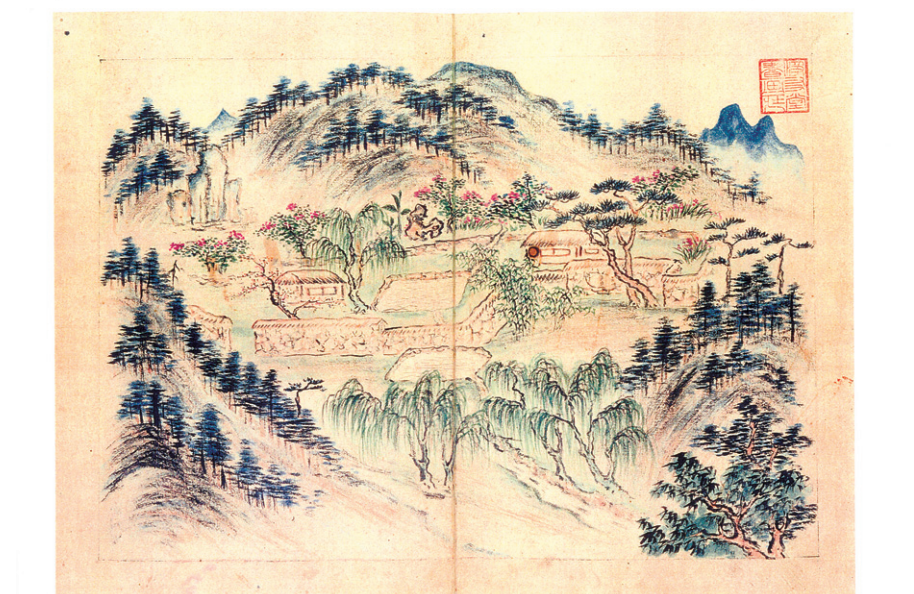
특히 초의선사가 그린 '다산초당도'는 눈길을 끈다. 이 작품은 다산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알 수 있으며 '유배지 강진의 생활' 또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다산초당 주변 4곳의 경치를 다산 자신이 읊어 쓴 시를 모은 <다산사경첩茶山四景帖>(보물 제1683호) △선비 하

다산의 생애 관련유물 142점 12월 16일까지 국립박물관서

가인 외증조부 윤두서의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之圖>(보물 제481-3호) △흑산도로 유배를 간 형 정약전에 대한 걱정을 담은 편지와 승려·제자 등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부인 홍씨가 혼인 30주년 기념으로 보내온 빛바랜 치마폭에 다산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 넣은 '매조도' 등을 초상화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이번 전시에서는 다산사경첩(茶山四景帖·보물 제1683호) 등 보물 2점을 비롯한 총 43건 142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이를 통해 여경 속에서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 고민했던 대학자 다산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그 인간적인 면모를 살필 수 있다. 전시의 △고향, 그리고 한양의 새로운 공부·성군을 만나(정조와 정약용) △살아남아 세운 뜻, 학문의 길 △유배지 강진의 생활-고향 마재로 돌아와서 △정약용, 사



국립중앙박물관은 12월 16일까지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 테마전을 연다. 그림은 초의선사가 그린 '다산 초당'

찬란한 광명 세상에 전하다

불상조각장 이진형 ... '부처, 빛을 품다'展

대전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조각장 이진형 작가가 '부처, 빛을 품다'전을 개최한다.

11월 18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서 관음보살상, 삼세불, 관음반가상 등 다양한 불상과 보살판화, 동자 및 달마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3년 여 작업 기간을 거쳐 완성된 불보살 작품은 부처님 세계의 광명을 표현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다양한 보석을 사용해 '찬란한 광명'을 표현했다.

이진형 작가는 "특히 관음보살은 조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켜 화관을 화려하게 장식, 보살의 의미를 되새겼다. 조선시대

부터 우리 불상 조각들이 많이 단순해진 면이 없지 않다. 영락 장식을 통해 세상에 광명을 전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최대한 극대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운 이재석 두 아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는 내년 하반기에 삼부자전을 계획하며 여진미술관 내 작업실에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진형 작가는 임석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으로부터 불교조각의 형태·비례·색채 등 불교조각 전반에 걸친 기능을 전수받았다. 이후 불상조각가로 지경, 전문 불상 조각가의 길을 걷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진형 작 '관세음보살상'

서울시, 전통공예문화 작품전...남산한옥마을서

사경·탑 등 공예품 40점 선보여

서울시가 '제17회 전통공예문화 작품전'을 11월 15일까지 남산한옥마을 전통공예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경, 탑, 사리함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김정미 씨는 '문수사리문보리경' '불설대부모은중경' 등의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김 씨는 "공예문화 작품전에서 사경 작품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 특히,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은 고려시대 감지 은니 '문수사리문보리경'을 모티브로 하여 구성했다. 경의 말미부분에 828자가 결서되어 있어 고려대장경과, 건륭대장경을 저본으로 하고 대교작업



김정미작 '문수사리문보리경'

을 하여 완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정미의 '5층 금부탑', 윤기현의 '사리함', 황갑주의 사리구 등 불교 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12개 분야 40여 점의 가, 귀금속공예, 옥공예, 궁중자수, 사경, 선추 등의 공예품들도 선보인다. 서울시는 "현대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문화·예술을 꾸준히 지켜오는 장인들을 지원해 우리 고구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을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년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죽염용 구매시 사은품 (후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신(편)입생모집**

2013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야간)

■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불 교	치문화전(전통)	불교사학(학부)	생사유예	명상심리상담
전 공	불교학, 신학	다도·제다	사 회 복 지	생사유예	명상심리상담
모집인원	00명				

■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자 또는 2013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도자과정
· 조계종 대덕법계 품수 승려
· 각 종단의 간부
· 각 사행단체의 대표 및 간부
·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구 분
원서 교부 및 접수	2012.11.12(월)~11.30(금)	본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
전형일 및 장소	2012.12.8(토) 10:00~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 특 전
· 사회복지전문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생사유예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 수료생(4학기 수료)은 총장명의로 상제사 인증 응시자격 부여 및 경제도시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명상심리상담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 수료생(4학기 수료)은 총장명의로 명상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직승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인문연구소장의 장학금을 지급함
· 본 대학교 출신자 전학시 입학금 면제

■ 문 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 TEL 02-2260-3096, 3097 · FAX 02-2260-8627
· <http://gsbs.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불성의 광명과 긍정의 힘
체발하는 '천수다라니' 수행지침서

불교TV 방송강의 중

《다라니의 힘》
수지심사신통장
受持心是神通藏

일선법상 지음
신국판 | 부분컬러 | 448쪽 |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참 행복을 위한 '무한능력' 일깨우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법상스님 수행일기 · 범문 담은 '마음의 힘' 사용설명서

덕양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이 당신의 수행일기와 범문을 통해 자성(自性)을 깨닫는 다라니수행의 길을 체험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광명의 깃발이자 신공의 보물창고'로 불리는 대비주를 통한 집중수행으로 불성의 무한능력을 일깨우는 불교적인 자기개발서이자 다라니수행 안내서가 되도록 편집했다.

일산 덕양선원 031-907-7172, 다음카페(cafe.daum.net/zeol)
비움과스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031-534-3373